

교총 전국 교육자대회 연설문

존경하는 전국 40만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총 회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을 하고 계신 모든 교육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한국교육의 희망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군현 회장님과 교총회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교육자 대회의 구호가 말해주듯이
우리 교육은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시 부담으로 신음하고, 학부모는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
다.

선생님들은 실추되는 교권으로 스승으로서의
공지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갈수록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낼 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
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 교육의 중요성 >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교육문제야말로 지금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기울여야 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교육을 살리는 일”이 단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교육관련 토론회에 나갈 때마다 교육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의 하나가 바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총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단위학교와 교사 중심의 개혁 추진 >

아울러 저는 우리 한국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전체적인 방향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첫째는 학벌 중심의 연고주의 사회를 실력 중심의 사회로 바꾸는 일입니다.

2-2-2

둘째는 획일적인 교육을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일입니다.

셋째는 규제와 지시에 의한 타율적인 교육을 단위학교와 교사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교육과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 교원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는, 지난 10년 간의 교육개혁은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잘못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삼기보다는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능한 교원들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교원부족 사태와 교직사회의 사기 저하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 노무현은 학교교육을 살리는 첫걸음을 교원 여러분께 힘을 실어드리는 일로 삼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의 두 가지 방향 >

저는 이 약속을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학교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층층시하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무엇 하나 소신껏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실정을 교육활동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일선 교육기관으로 분산, 이양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과 예산 운용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위학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원들이 주도할 수 있는 참여 폭도 커질 것입니다.

둘째는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미, 초·중등 교원이 대학 교수 수준의 사회적 예우와 경제적 처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원이 대학교수보다도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단계가 올라갈수록 교원의 처우가 더 높아야 한다는 생각은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모든 교원은 차별 없이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총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우수교원 확보

법」이 교원 집단 전체의 뜻을 모아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부당하게 차별되고 있는 교원의 정치적 권리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양성과 임용, 승진 제도 등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잡무 경감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짧은 시간에 교육에 관한 저의 소신과 약속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교육공약 발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맺음말 >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

교육자들 앞에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을 국정의 우선 순위에 두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곳이 교육위원회라는 사실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 시절, 일부러 자원하여 2년 반 동안 교육위원으로 일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육 문제는 정치인들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육문제 해결의 첫째 열쇠는 바로 교육자 여러분과 교육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감히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 노무현은,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의 하나로 실천한 대통령, 교원이 학교교육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한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국의 40만 교육자 여러분!

한국교육의 앞날은 바로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저 노무현은 여러분이 교육을 살리는 일을 돕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